

부천상공회의소, 'ESG 일반교육' 1

디지털전환 시대의 ESG경영

- 디지털전환(디지털혁신)과 ESG전환(ESG혁신) -

메가 트렌드,
디지털전환과
ESG전환!

2022. 9. 20. 11:00-12:00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사)대한경영학회 회장, 대한민국ESG메타버스포럼 의장



ESG 퀴즈

2

1.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이다. (O, X)
2. ESG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요소인 **환경·책임·투명경영**을 뜻하는 말이다. (O, X)
3. 지속가능성(ESE), 지속가능발전(SD), MDG, SDG, ESG는 뿌리가 같다. (O, X)
4. ESG는 전에 없던 개념·의미이며, 수년 내에 새로 생긴 개념·의미이다. (O, X)
5. 지속가능성의 3대 축(3대 기둥) ESE와 ESG는 전혀 관련이 없다. (O, X)
6. "ESG경영 무게중심 'G'(투명경영)로 이동할 것" - 서울경제, 2021.05.17. (O, X)
7. "ESG, S→E→G로 초점 옮겨갈 것" (O, X)
8. "CSR에서 시작해 CSV(공유가치창출)를 지나 ESG로" -매경, 2021.07.09. (O, X)
9. "ESG, 5년 후엔 새 용어와 흐름으로 진화할 것이다." (O, X)
10. ESG에서 E는 'ISO 14001'(환경경영), S는 'ISO 26000'(사회적책임경영), G는 'ISO 37301'(준법경영)을 참고하면 구체적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O, X)

< 목 차 >

4

I . ‘디지털전환’과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 —	5
II . 이 시대 메가 트렌드: 디지털전환, ESG의 변화 —	12
III . 기업과 ESG경영 이슈 —————	33
IV . ESG경영 실행 프로세스 —————	38

I. ‘디지털전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

5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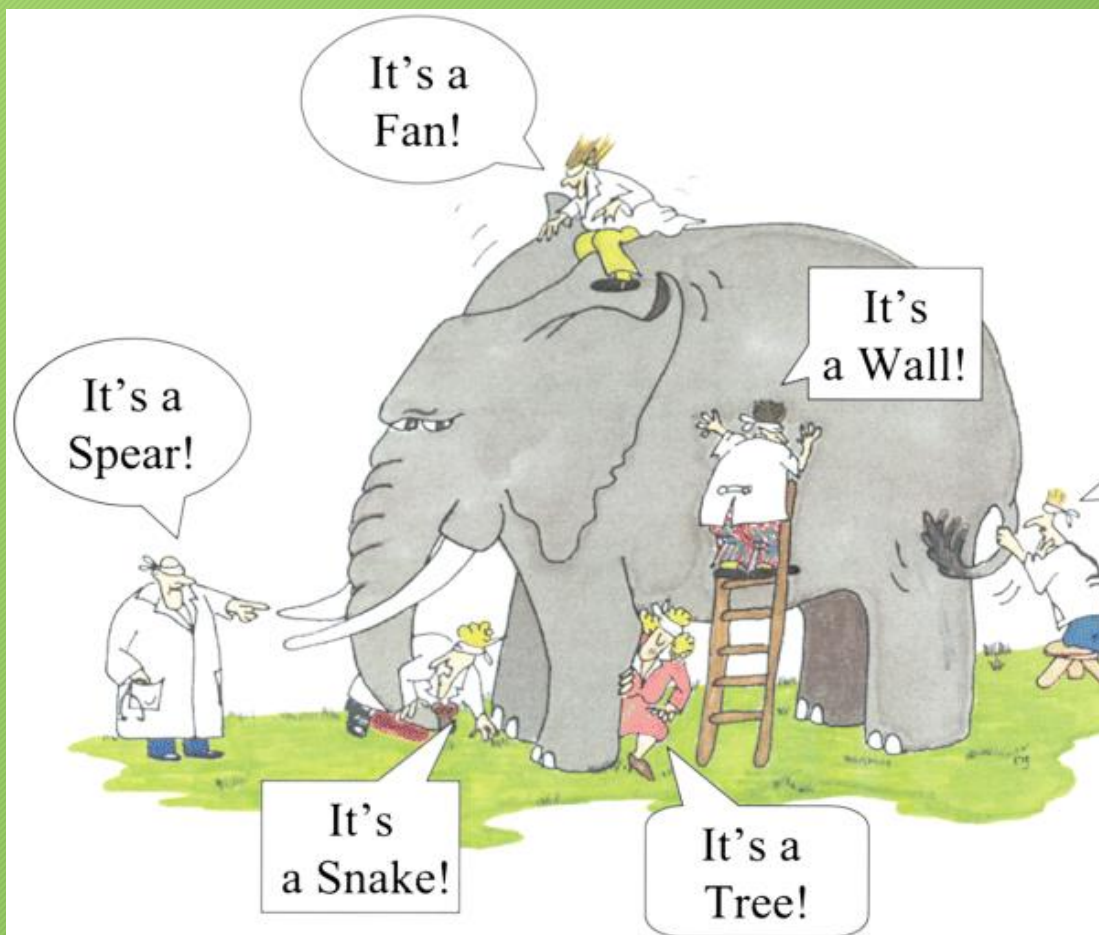


그림 기술혁명의 실체

| Big data | Industrial Internet | AI

Machine Learning | Data Science | Cloud Computing | Virtual Reality



디지털전환(= 4차산업혁명)의 쉽고 정확한 이해 : ‘아이언맨 4’

4차산업혁명의 7대 요소를 기반으로 한 정의:

“4차산업혁명은 1) ‘융합혁명’과 2) ‘비즈니스혁명’이며(팔),

3) ‘초지능성’(인공지능)과 4) ‘초연결성’(5G, 6G) 기반(다리)의

5) ‘신뢰성’(블록체인)과 6) ‘개방성’(플랫폼)을 특성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선정
 $13-2(\text{AI, 5G})+1(\text{블록체인})=12$ 개 산업이 몸통이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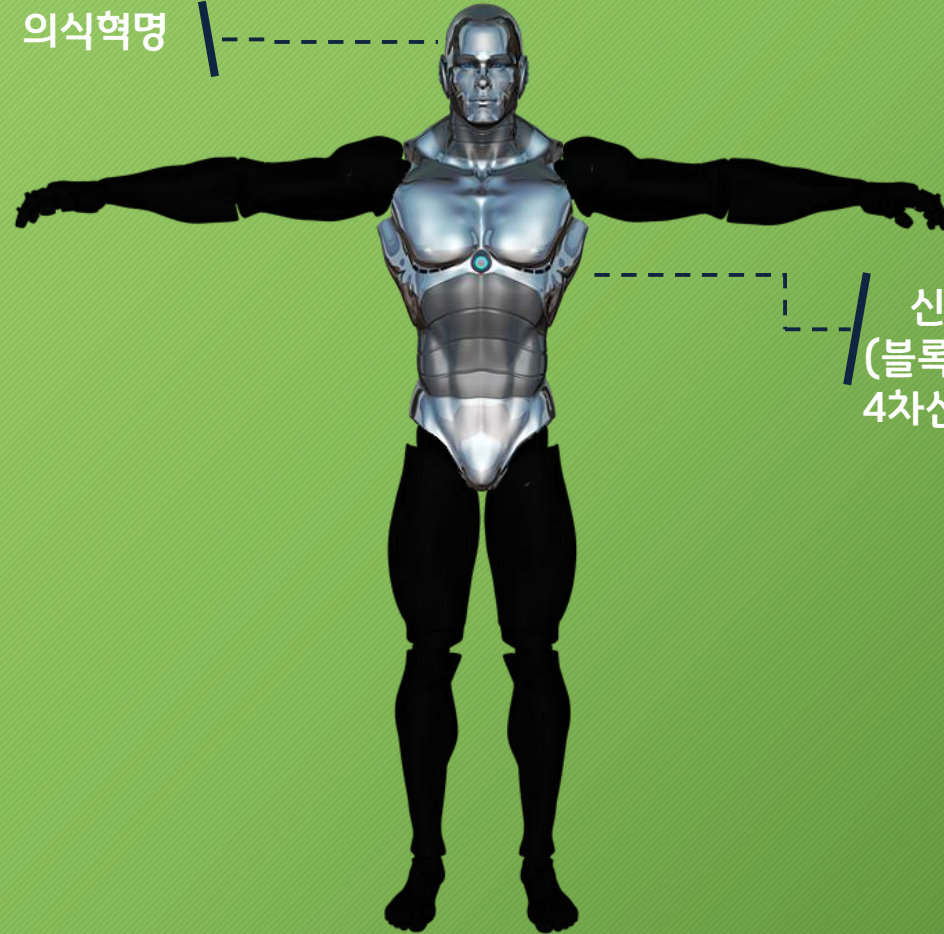
7) ‘의식혁명’(머리)이 중요하다.”

- 문형남

4IR(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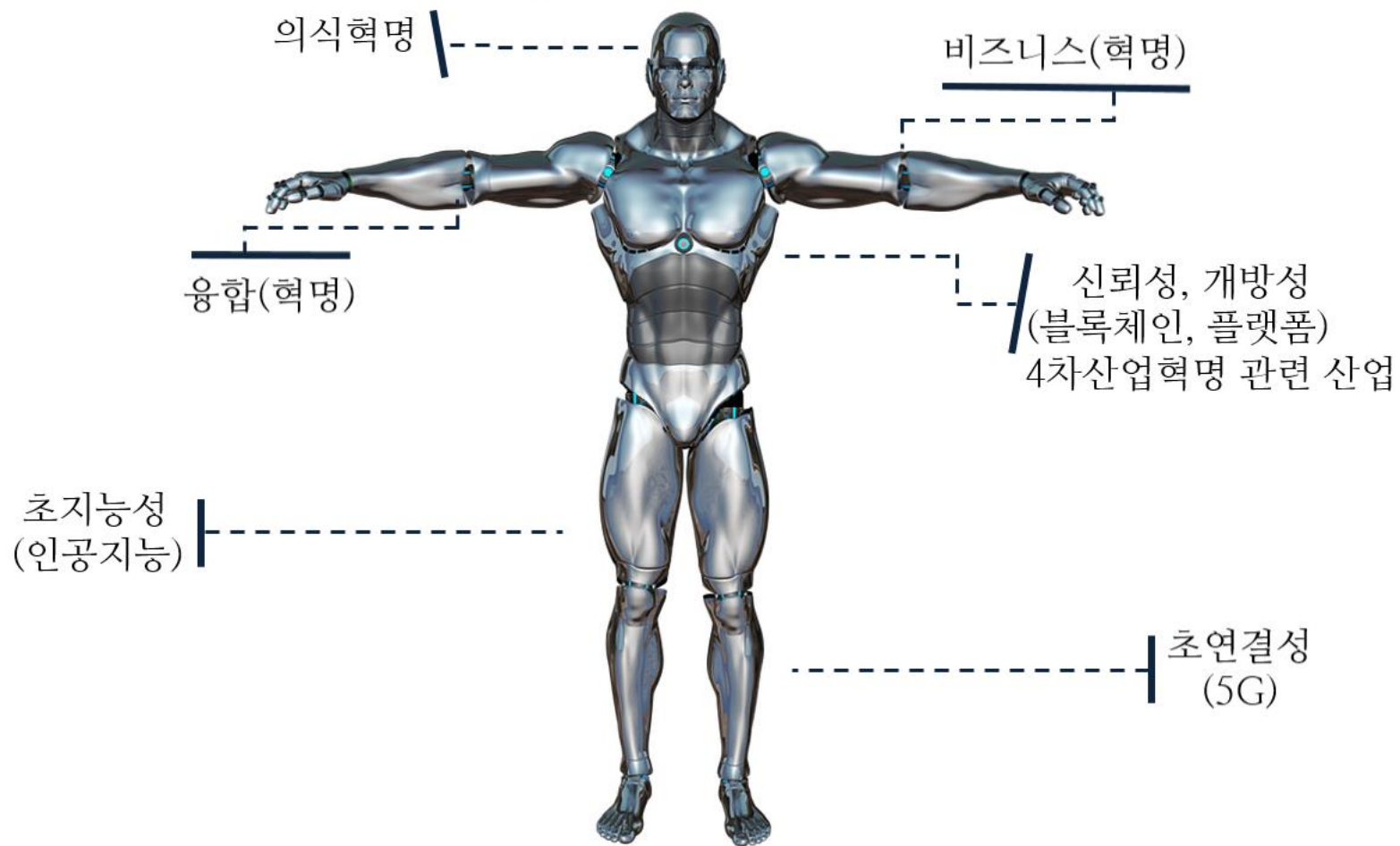
8

의식혁명



신뢰성, 개방성
(블록체인, 플랫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4IR(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The Fourth(4th) Industrial Revolution) 을 다른 말로 표현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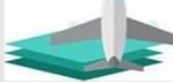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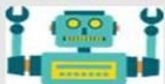
10

1. 인더스트리 4.0 (Industrie 4.0, Industry 4.0) – 독일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 – 미국
3. IT융합비즈니스(2013),
AI융합비즈니스(2019). – 문형남

'4차산업'은 무엇인가? - '4차산업'은 없는 말, 존재하지 않는다!
->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

한국의 4차산업혁명 13개 분야 : 4개 그룹으로 그룹핑

-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유망 분야 13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지능화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등 네 가지 그룹으로 그룹핑(grouping)함.
- 지능화인프라(3) :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 스마트이동체(2) :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 융합서비스(4) :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 산업기반(4) :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구분	지능화 인프라(3)	스마트 이동체(2)	융합 서비스 (4)	산업기반(4)
분야	빅데이터(D) 	자율주행차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반도체 
	차세대통신(N)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인공지능(A)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II. 이 시대 메가 트렌드 디지털전환, ESG의 변화

12

1. ESG = ESG혁명 = ESG경제

2. 메타버스 = 메타버스혁명 = 메타버스경제

2022 10대 트렌드 키워드 - 문형남, 2021.12.08.

12

분야	키워드
메가 트렌드 (Mega Trends)	ESG (환경 · 책임 · 투명 경영) 메타버스 (Metaverse)
비즈니스 트렌드 (Business Trends)	애자일 (Agile, Agility) 코피티션 (Co-opetition)
라이프 트렌드 (Life Trends)	진정성 (Authenticity) 퀵 커머스 (Quick commerce)
기술 트렌드 (Tech Trends)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웹 3.0 (Web 3.0)
문화 트렌드 (Culture Trends)	평온 (Serenity, Calm) 벨벳 바이올렛 (Velvet Violet)

II-1.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

14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 99% - X

ESG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요소인 환경·책임·투명경영을 뜻하는 말. 1% - O

들어가며 2-1

7

ESG = ESG투자?

투자회사(자산운용사) = **ESG투자**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 **ESG경영** = 착한 경영(?)

소비자(개인) = **ESG소비** = 착한 소비(?) # 저탄소 소비

ESG = ESG투자 + ESG경영 + ESG소비 = ESG경제

ESG경제 -> **ESG혁명**

Riding the ESG Revolution.

들어가며 2-2

ESG 소비 = 저탄소 소비

03

저탄소 인증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은 탄소발자국 인증 기준으로
동종제품이 배출하는 평균 탄소배출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입니다.



ESG 실천 방법, '쓰레기 줍기'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면...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적 업무명령권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해야 할까? 공공 기관 등에 가서 ESG에 대한 경의를 하면서 ESG를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 줍기를 하고서 ESG활동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 좀더 수준 높은 ESG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한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ESG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어서 쓰레기 줍기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많아서 이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ESG 중에서 E(환경) 부분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 개념,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기가 매우 중요하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계산해보는 것이 ESG 실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탄소발자국은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탄소발자국 계산은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검색해서 전기·가스·수도·교통 등 4가지 사용량을 입력하면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와 우리 조국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얼마인지 알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음식을 소비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도 항상 탄소배출량을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육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육류 및 유제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채식이 지구를 살린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ESG를 고려하면 우리는 '저탄소'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 저탄소 음식을 선택하려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음식을 피하면 될 것이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환경운동 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음식 10가지를 조사해 소개했다. 조사 결과는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 음식은 양고기로, 무려 38.2kg의 탄소를 배출한다. 양고기 1kg을 섭취하는 것은 144km 거리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양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소화 과정, 사료, 비료 관리 및 기타 농작물 생산에서 발생하고 일부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음식 2위는 쇠고기로 1kg당 26.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양고기 대비하면 적지만 소는 특히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쇠고기가 육류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조사도 있다. 3위는 치즈로 1kg당 13.5kg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 이유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는 치즈 제조에 소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4위는 돼지고기로 1kg당 12.1kg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절반 이상이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나머지는 고기의 가공과 운송, 요리 과정에서 배출된다. 5위는 양식 연어로 1kg당 11.8kg이다. 연어 사육을 위한 사료 생산과 전기 및 연료 사용 때문에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6위는 참연조로 1kg당 10.9kg, 7위는 닭고기로 1kg당 6.9kg의 탄소가 발생한다.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다.
8위는 통조림 참치로 1kg당 6.1kg이 발생하는데, 참치를 잡고 연어 포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특히 참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 선박 연료인 디젤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큰 요인이다. 9위는 계란으로 1kg당 4.8kg, 10위는 감자로 1kg당 2.9kg의 탄소가 배출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려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는 계란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음식 중에는 감자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편이다.

커피는 1kg당 15.33kg, 에스프레소 1잔에 0.28kg, 라떼 1잔에 0.59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커피 산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아라비카 커피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15.33kg이며, 베르나산이 16.04kg, 브라질산이 14.61kg이다. 에스프레소 한 잔의 평균 탄소발자국은 0.28kg, 라떼 한 잔의 평균 탄소발자국은 0.55kg, 카푸치노 0.41kg, 플랫 화이트 0.34kg 등이다. 이제는 커피를 마실 때도 탄소발자국을 고려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탄소 다이어트'라고도 한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다이어트 방법들을 소개한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이메일 정리하기,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기, 컴퓨터 전원 끄기 등이 있다. 매일 보관함 1GB당 14.9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자전거 이용하기, 계단 이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만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연간 44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쇼핑할 때는 모바일 영수증 사용하기, 저탄소 인증 표시 제품이나 환경마크 제품 등 친환경상품 구입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이 있다.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받으면 1장당 36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장에서 생활할 때 사워 시간 줄이기, 빨래 횟수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 등이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피의 경우 생산·소비의 각 단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경우 커피 1kg당 탄소배출량을 3.51kg으로 최대 7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은 생산자 입장에서 식품·제품 등을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산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소·육·식·산·기·관 등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부단히 탄소발자국(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습관화해야 한다. 식품·제품 등을 구매할 때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고, 구매해야 한다.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 ▷매일경제 기자 ▷대한환경경제학 학회 회장 ▷K-헬스케어학회 회장 ▷한국AI교육학회 회장 ▷웹툰연구소 대표 이사 ▷국기ESG연구원 원장 ▷사이지속가능과학회 공동회장

들어가며 3

9

글로벌 ESG 투자 35조3,000억 달러 (약 ??원)
---미국 등 5개 주요국 투자 자산의 36%

전문가들, 'ESG 개념 정립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GSIA는 2년 마다 조사를 진행하는데 2년 전 조사 때보다 ESG에 대한 투자가 15% 늘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48%와 42%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2021. 7. 19.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719010003063>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1)

10

아래 둘 중 어느 것이 맞는가?

- 1)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Environment) · 사회 (Social) · 지배구조 (Governance)를 뜻하는 말.
- 네이버(두산백과) 등 99% 이상 자료
- 2) ESG : 환경 · 책임 · 투명경영.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 매일경제, 문형남 등 1% 미만 자료

* ESG : 조직의 지속가능성 요소인 환경(환경경영), 책임(책임경영), 투명경영을 뜻하며, 이를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 문형남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2)

11

순화 대상어	이에스지(ESG) 경영
순화어	환경·사회·투명 경영
원어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經營
의미/용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참고 사항 (순화 이력 등)	국립국어원, 새말모임(2022.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View.do?mn_id=&imprv_refine_seq=20979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3)

20

Environment

- Environmental Measures Required for Motors
- Manufacture of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ducts
- Produ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 CSR Procurement
-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Remediation
- Reduction and Recycling of Wastes



Social

- Contribution to Society through Corporate Activities
- Educational Support
- Regional Support

Governance

- Basic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 Management Monitoring System
- Risk Management
- Thorough Complia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이해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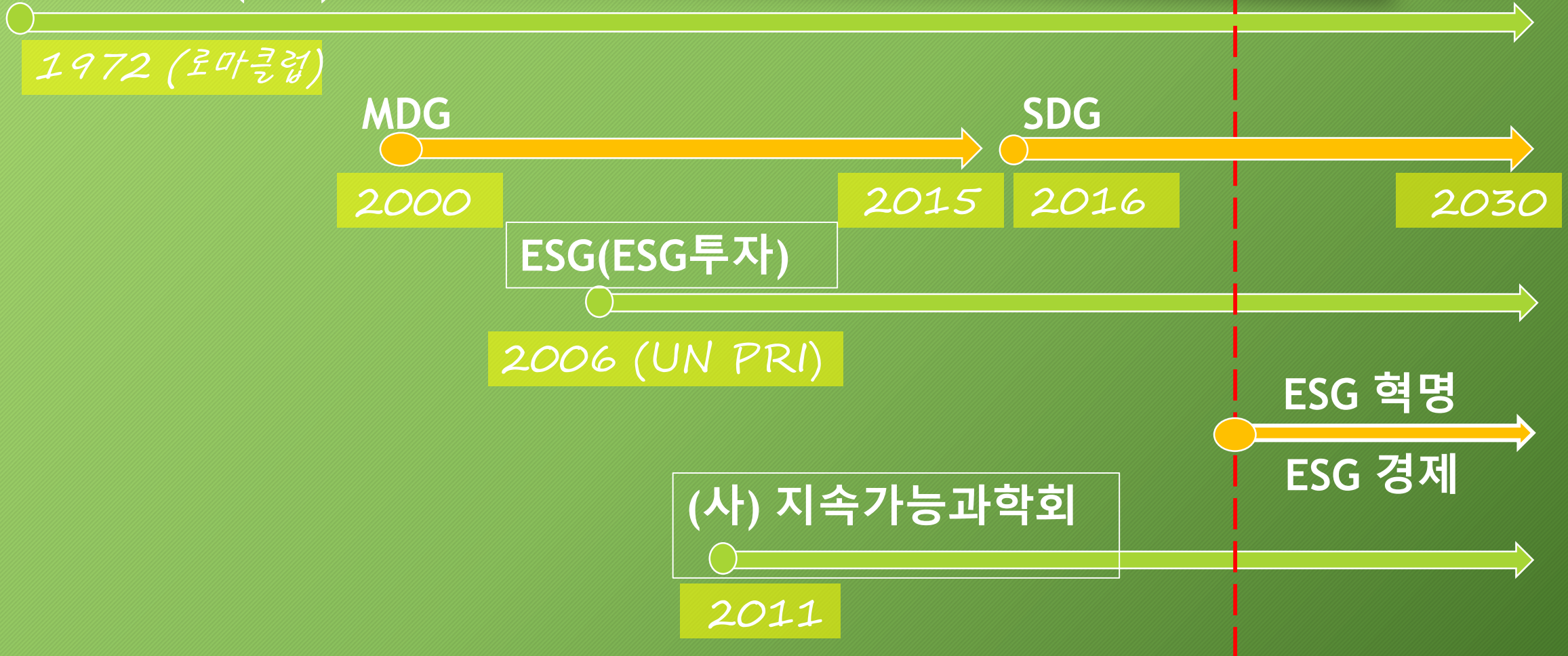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이란
환경(E)을 파괴하거나,
행복한 삶을 희생시키지 않고 * 사회(S)
경제(E) 발전을 이룩하는 것.

지속가능성(ESE), MDG, SDG, ESG

22

지속가능성(ESE)

현재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ESE)

23

- 인간사회의 환경(E), 사회(S), 경제(E)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
-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계획과 활동
- 1972년 이후, 경제나 경영, 환경, 기후문제, 국가정책, 소비자 활동 등에 사용
- 인간과 자연 또는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효율적인 조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형평성 추구
- 지속가능경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코 효율성, 혁신과 기술, 생물다양성, 지속 가능시장 및 위험관리

지속가능성의 3대 축

15

- TBL (Triple Bottom Line)은 지속가능경영을 완성하는 3대 축으로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경제적 수익성을 균형적으로 통합
- 환경적 지속가능성 (E)
 - 생태계유지, 환경용량유지, 천연자원 및 생물 다양성 유지
- 사회적 지속가능성 (S)
 - 계층간 형평성, 환경자원의 공평한 분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 경제적 지속가능성 (E)
 - 소비 및 생산 등 경제활동 유지, 고용창출, 삶의 질 증대

지속가능성의 3대 축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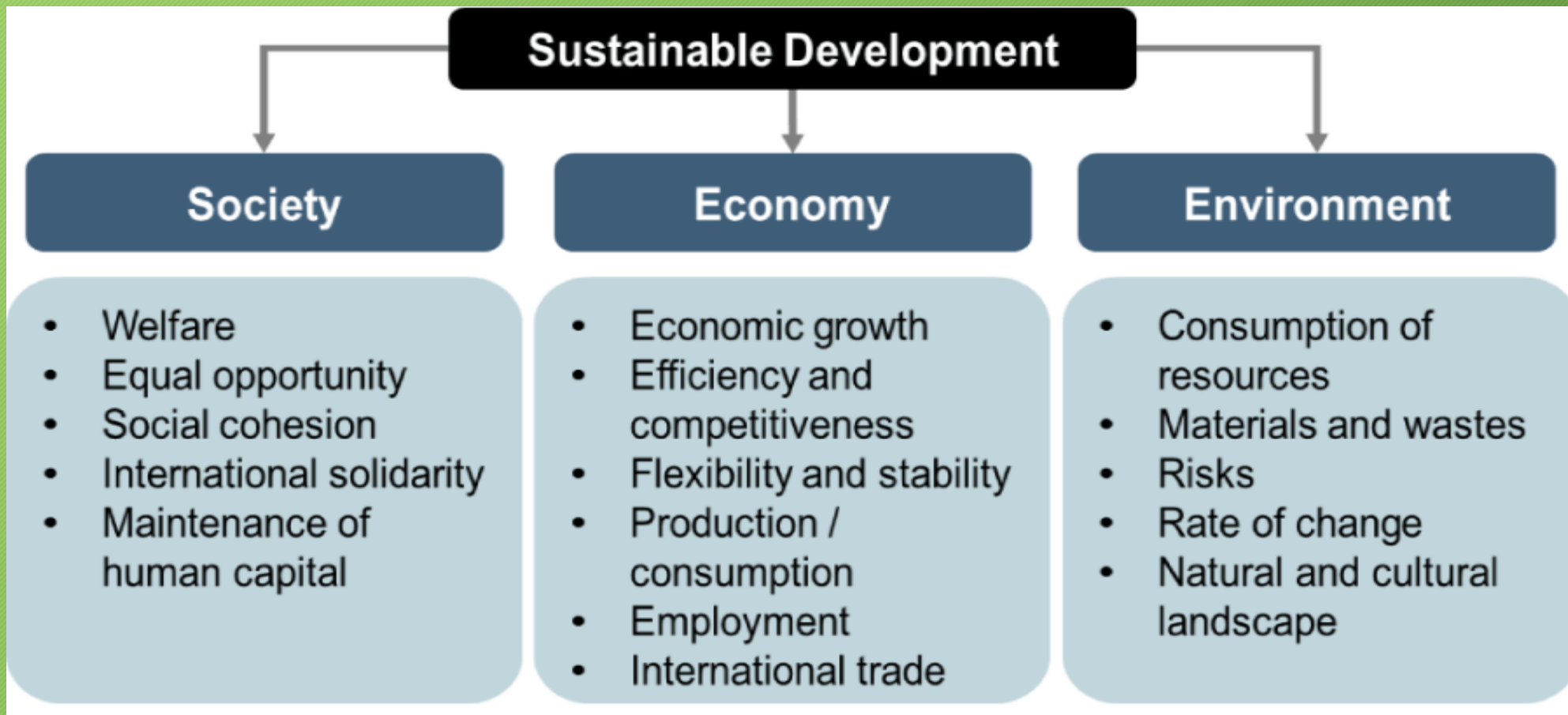
전
형
적
인
기
준

경제적인 축	환경적인 축	사회적 축
판매, 이익, ROI	세금 정산	화폐의 유통
공기 정화	수질 정화	에너지 절약
근로의 실행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인간의 권리
일자리 창출	산업 폐기물 생산	생산품에 대한 책임감
TOTAL	TOTAL	TOTAL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환경(E), 사회(S), 경제(E) = E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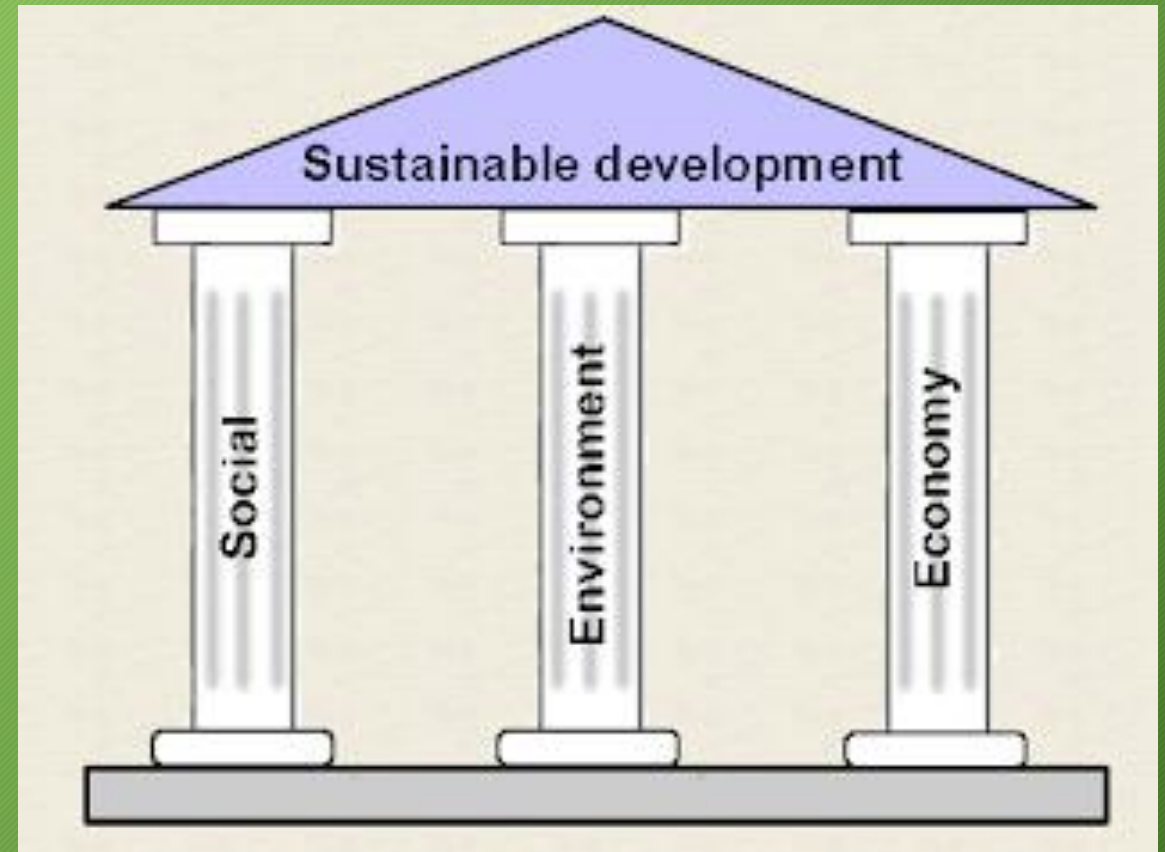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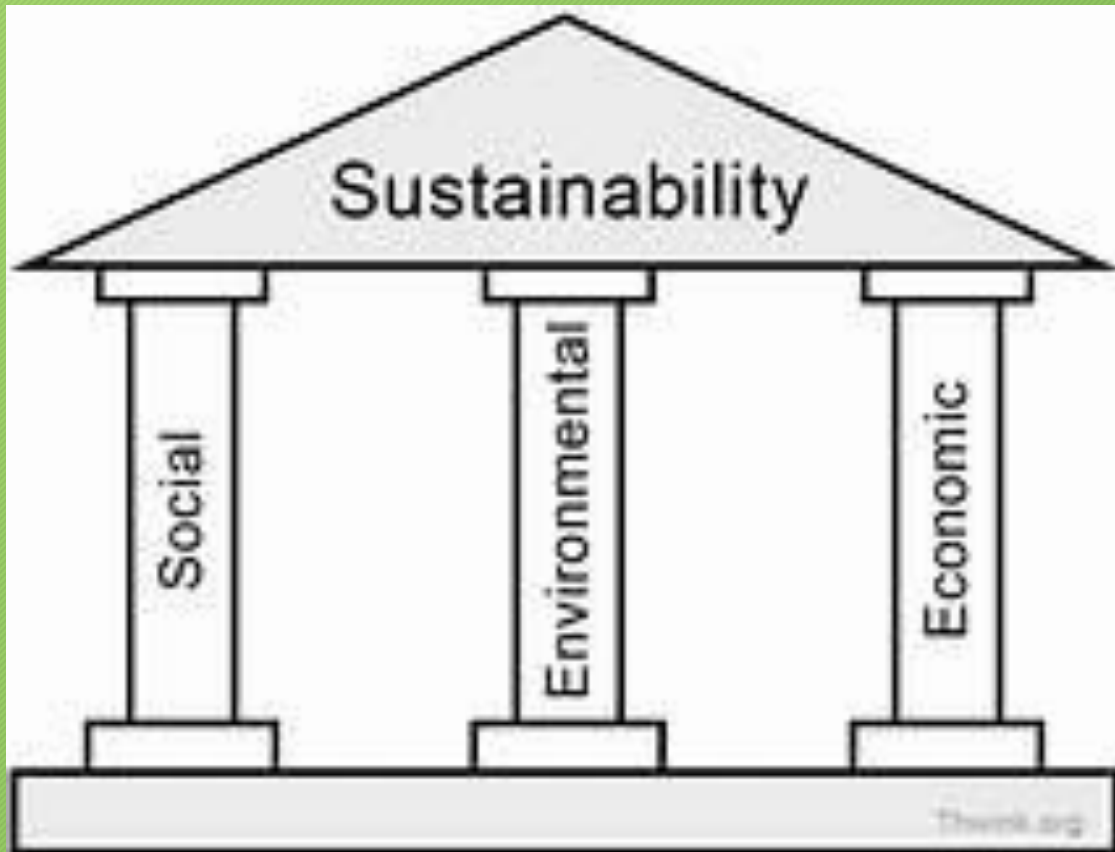
=>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SD) => ESG

26



3 Pillars(Triple Bottom Line: TBL) of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E, S, E) is the organizing principle for meeting human development goals.



3 Pillars(Triple Bottom Line: TBL) of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E, S, E) is the organizing principle for meeting human development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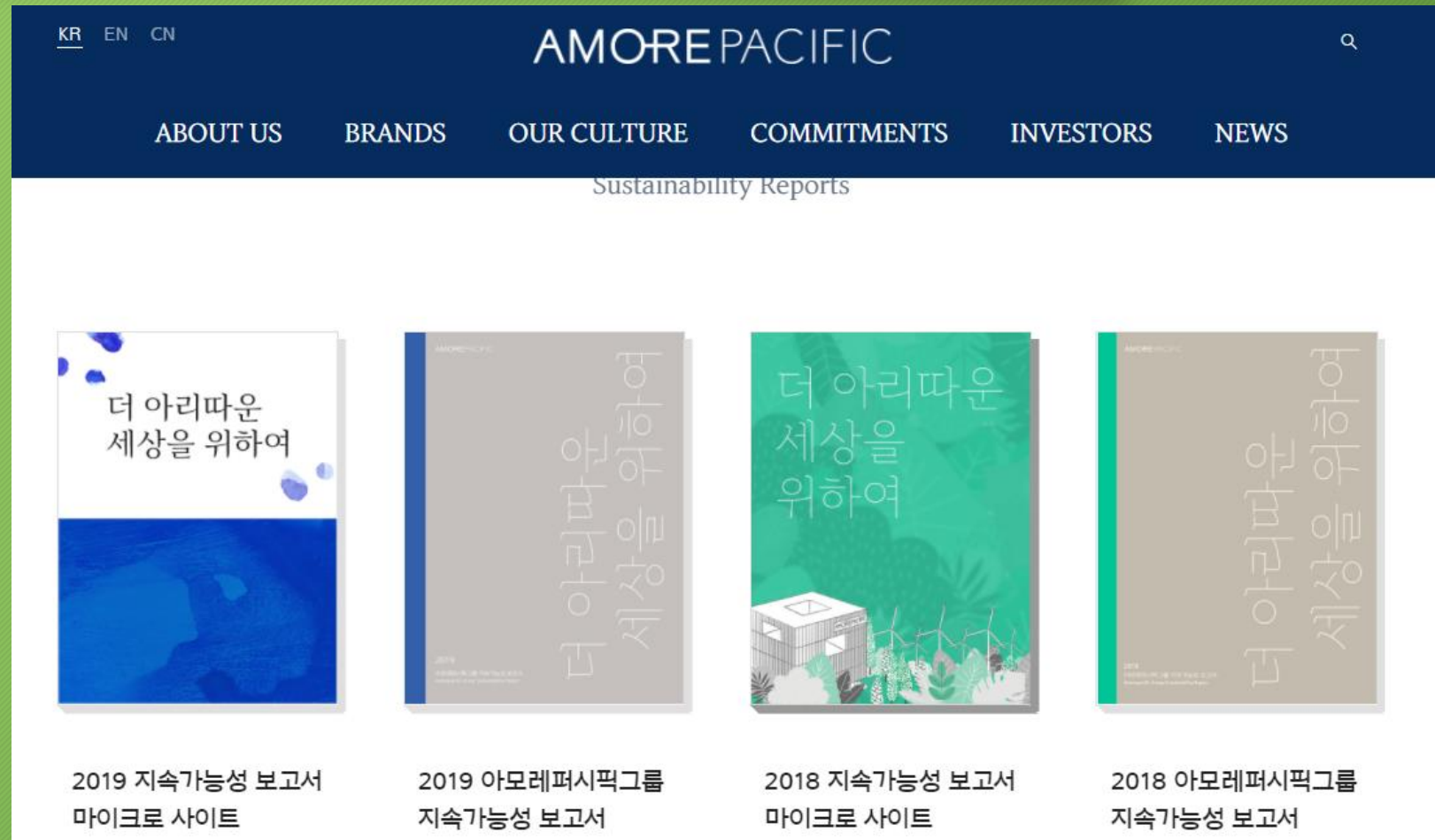
livable 살기에 적합한[좋은]
viable 실행 가능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고서

29

- 경제, 환경을 함께 다루다
‘아모레 퍼시픽’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UN의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30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의 목표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
- 인류가 나아가야 할 17개 목표
- 169개 세부 목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UN의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31



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3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19개 세부목표 및 236개 지표 [\[원문보기\]](#)



III. 기업과 ESG 경영 이슈

33

1인당 연간 탄소배출량 국가별 상위 20개국

34

순위, 국가,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 (단위 1 metric ton=1,000kg), 해당 국가의 인구

- | | |
|------------------------------|--------------------------|
| 1. 사우디아라비아 18.48T 3,370만 명 | 11. 이란 8.82T 8,180만 명 |
| 2. 카자흐스탄 17.60T 1,828만 명 | 12. 남아공 8.12T 5,778만 명 |
| 3. 호주 16.92T 2,499만 명 | 13. 중국 7.05T 약 13.9억 명 |
| 4. 미국 16.56T 약 3.2억 | 14. 영국 5.62T 6,627만 명 |
| 5. 캐나다 15.32T 3,706만 명 | 15. 이탈리아 5.56T 6,048만 명 |
| 6. 한국 12.89T 5,164만 명 | 16. 터키 5.21T 8,081만 명 |
| 7. 러시아 11.74T 약 1.4억 명 | 17. 프랑스 5.19T 6,689만 명 |
| 8. 일본 9.13T 약 1.26억 명 | 18. 멕시코 3.77T 약 1.26억 명 |
| 9. 독일 9.12T 8,279만 명 | 19. 인도네시아 2.30T 약 2.6억 명 |
| 10. 폴란드 9.08T 3,798만 명 | 20. 브라질 2.19T 약 2억 명 |
| | 21. 인도 1.96T 약 13.5억 명 |

기업들 탄소에 운다...

'탄소세-탄소국경세-탄소배출권' 3중 부담

35

각국 정부, 탄소이슈 내세워 기업에 조세 전가
한국 탄소국경세 직격탄... 2030년 1조8700억 부담
탄소세 도입 임박... 탄소배출권까지 '3중 과세'

〈 19년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단위:%) 〉

	한국	미국	일본	EU	독일	영국	프랑스
석탄발전 비중	41.5	23.6	30.9	17.5	28.2	2.2	0.8

※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특히 한국은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상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탄소국경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일본(30.9%), 독일(28.2%)를 크게 상회한다.

EU 탄소 배출 과세 분석 (단위=억달러·%)

*과세 금액은 EU가 이산화탄소 1t당
36달러를 부과했을 경우.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	과세 금액	관세율
중국	119.13	2.6
러시아	64.34	3.9
미국	35.41	1.1
인도	24.15	4.6
터키	15.95	2.0
한국	10.61	1.9
일본	7.82	0.8
노르웨이	7.30	0.9
스위스	6.95	0.5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휘발유·경유차 2035년부터 판매 금지

37

EU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한 뒤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CBAM을 도입하면 중국·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에 연 47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한국의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탄소배출세를 피하려고 공장을 역외로 옮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IV. ESG 경영 실행 프로세스

38

1. **사명, 비전** → **비전, 미션(사명), 핵심가치** : 전 직원 워크숍 통해 도출
2. ESG추진팀 설치
3. ESG위원회 설치
4. 매년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ESG경영 선포식 : v 1.0, v 2.0, v 3.0 ~
5. CEO의 ESG경영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
6. 전 직원, 학생의 ESG경영에 대한 참여
7. ESG경영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8. ESG 스터디 모임 지원, ESG 실천 활동 지원

< 각 부서별 ESG경영 추진 방안 >

1. 각 부서별 비전, 비션, 핵심가치 설정
2. 각 부서별 ESG추진 전략 수립 및 실천

< 개인별 ESG경영 추진 방안 >

1. 개인별 비전, 비션, 핵심가치 설정
2. 개인별 ESG추진 전략 수립 및 실천

4차산업혁명, ESG경제와 메타버스경제

41

ESG혁명
(ESG경제)
(2021-2050)

4차산업혁명
(2016-2050)

메타버스혁명
(메타버스경제)
(2021-2050)

우리 앞에 4차산업혁명
옆에 ESG · 메타버스혁명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제안

25

“새 정부는 ESG·메타버스경제 불을 켜라”

- 이명박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성장을,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는 '4차산업혁명', 'ESG혁명'(**ESG경제**), '메타버스혁명'(**메타버스경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The end.
..... or the beginning.

43

Welcome any comments or
questions!

ebiztop@sm.ac.kr 010-4157-9963